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9월 2일(금)

(윤력 8월 7일)

Пятница

2 сентября 2022г.

№ 34 (1200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9월 3일은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로 공식적으로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사에서.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친애하는 친지 여러분!

사할린 주정부의 이름으로 9월 2일, 사할린의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남사할린과 쿠릴열도를 해방시킨 소련군의 승리는 대규모 전쟁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서는 역사상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현재의 국경선으로서 사할린주 형성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싸우신 분들과 사할린 지역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기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몰 영웅들에게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전쟁할 때나 평화로울 때나 사할린 지역을 위해 여러분이 애쓰신 모든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정한 목표를 성취하시며,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시는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주택과 사회적 시설들을 건설하고, 시와 마을들을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2차 세계대전의 진실을 간직하며, 국익을 수호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성취한 모든 것을 보호하겠습니다.

사할린 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평화와 행복과 우리 조국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성취를 기원합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의 공공 시설 개선에 4억 7천만 루블리 이상 배정

아니와, 돌린스크, 쿠릴스크, 흠스크, 코르사코브, 마카로브 지역에 정비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연말까지 사할린 주에 총 28개 공공 구역의 복구공사가 이뤄진다. 이 명목으로 주 예산에서 3억9천400만 루블리 이상이 책정됐고, 연방 예산에서 7천 6백만 루블리가 배당됐다고 주 정부 실무회의에서 보고됐다. 회의에서 주택가 보수공사 작업의 일환으로 '극동에 1000개 주택가' 기획 실행 과정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지금까지 연방 기금으로 38건의 주택가 공사가 이뤄졌으며, 이 작업은 아니와, 네웰스크, 노글리키, 포로나이스크, 티몴스코예 지역에서 시행됐다. 10월1일까지 사할린에서 84개 주택가 구역에 보수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작업은 '주택과 도시환경' 국가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사할린주 주택 공공사업부의 나탈리아 쿠프리나 장관이 말했다. 주택가 보수공사와 함께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2년간 전례없는 양의 보수공사가 진행됐다. 이 작업으로 950개 이상의 주택가 구역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에 주택가들의 문제점들을 찾아내 보수작업이 이뤄지도록 공무원, 자원봉사자들, 적극적인 주민들이 도왔다.

사할린주의 관광개발을 위해 연말까지 4억1천만 루블리 투입

사할린 지역 총생산액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이라고 사할린주 관광부 아르쎙 라자레브 장관이 말했다. 관광 개념에는 대중음식, 호텔, 차량 렌트, 관광 안내 및 여행 담당 업체가 있다. 아르쎙 라자레브에 따르면 호텔들이 2021년에는 10억80만 루블리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2020년에는 10억20만 루블리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1년 여행사들의 수익은 5억3백만 루블리, 2020년에는 1억8천5백만 루블리였다.

그럼에도 지역의 관광산업은 국가의 지원없이 지속되지 못한다. 이에 2021년에 다양한 관광 분야 지원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약 1억 7천만 루블리가 배정됐다.

올해 이 명목으로 4억 1천만 루블리가 제공된다고 라자레브 관광부장관이 언급했다.

단신

미하일 고르바초브 별세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마지막 서기장이자 유일한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브가(향년92세) 8월 30일을 일기로 별세했다고 중앙 진료병원을 통해 언론이 보도했다. 초기에 고르바초브는 팬데믹 초기에 중앙진료병원 의료진의 권고로 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관리 아래 있었다.

그는 1985년 3월부터 1991년8월까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1990년-1991년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 역임, 1991년 12월 25일 퇴임, 이후 소련은 해체됐다.

1990년10월15일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외국어대학교 연구팀, 사할린 한인 관한 기록물 파악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에서 일제강점기 시기 사할린 한인인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부터 31일까지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시 사할린한인 연구로 잘 알려진 동대학 사할린한인 연구팀장 방일권 교수가 사할린을 방문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2차례 사할린 현장에서 연구하여 올해 가을에 사할린한인 연구 기획 하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팀은 계속하여 일제 시기 한인 기록을 찾고 있고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작업장 기록과 초기 작업장 발령 기록을 찾는 데 집중했다.

러시아의 모든 학교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올해부터 모든 러시아 학교들의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고 세르게이 크라브초브 러시아 교육부 장관이 전 러시아 학부모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난방 10월 1일부터 시작

2022년-2023년 난방 시기를 시작하는 시 행정부의 규정안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세르게이 나드사딘이 시장이 서명했다.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주택 난방을 위한 마지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생활의 최적의 여건 조성을 위해 시장은 10월1일에 난방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오로라'와 '러시아' 항공사의 첫 공동 항공편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루어져

'오로라' 항공사가 '러시아' 항공사와 첫 공동 항공편을 운항해 8월 31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서 첫 승객들을 맞이하여 항공편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떠나 크라스노야르스크로 향했다. 통합 극동 항공사의 20만 번째 기념 승객으로 웨데라 포야조와가 당첨돼 무료 항공 이용권을 선물로 받았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6루블리 9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75세를 맞이하는 이명복 선생: 시계 수리에 50여 년, 동양 무술에 36여 년 바쳐

이명복(1947년 생)은 씨는 코르사코브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다. 50여 년 시계수리공으로 종사했다.

이분의 러시아 이름은 표트르 페트로위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칭으로 따뜻하게 페트로위츠라고 부른다.

그의 출생증명서에는 출생지로 함경남도 가 표기돼 있는데 실제로 그는 배에서 태어났다. 출항 3일이 지난 날이었다. 출생지로는 가장 가까운 곳을 적었는데 바로 함경남도였다고 한다. 배는 러시아 극동지역 연해주로 향했다. 1953년에 부모를 따라 사할린으로 오게 되었다. 그리고 평생 한 도시 - 코르사코브에서만 살아왔다.

2남4녀 형제가 있는 가족이어서 살기가 좀 바빴다. 아래 여동생 3명이 있어서 일도 빨리 시작했다. 만 16살에 공사장에 나갔다. 동시에 야간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11학년을 졸업했다. 건설 현장에서 목수 일도 익히며 코르사코브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아파트 공사로 거의 20동 건설에 참여했다. 이렇게 건설에 7여 년을 바쳤는데 어느 하루 공사장에서 낙상해 척추를 다쳤다.

이런 부상으로 공사장에서 일하기가 어려우니 직업을 바꿔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그때 마침 우연히 시계수리 작업실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사장이 "시계 수리공 해봐."라고 적극 추천하여 잠깐 일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잠깐이 50년이나 되었다. 그가 시계수리공을 시작한 게 1972년이다.

"이 일이 얼마나 재있는데요. 창작적인 일 이잖아요. 고장난 시계를 보고 이를 수리를 어떻게 할까? 여러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전 전문가끼리만 이해가 될 겁니다."라며 이명복 씨가 시계수리공에 대해 이



야기할 때는 목소리도 활기차고, 눈도 뽀짝였다.

시계수리공으로서 고급 수준의 마스터가 되어 이에 대한 자격증도 따냈다. 그동안 제자 4명을 키웠는데 돈벌이에만 눈이 휘둘린 3명은 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마음으로 이 직업을 좋아하는 제자 한 명은 이 직업에 오래 종사해왔지만 얼마 전에 눈을 감았다고 한다. -코로나 19가 시작되면서 시계수리는 뜸하게 되었고, 1년 전에는 사실 정식 수리 작업실도 없어졌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시계 수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있다. 사실 그가 지금 작은 항구도시에서는 유일한 시계 수리공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의 수리 요청에 항상 긍정적으로 응한다.

이명복 씨는 도시에서 시계수리공으로만 알려진 것이 아니다. 그는 동양무술 마스터로도 잘 알려져 있다. 무술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직접 척추 부상을 잘 관리해서 완치가 가능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했거든요. 축구도 하고, 바다 수영도 했습니다."라

고 하였다.

1977년에 그는 가라테에 관심을 가졌다. 그 당시 소련에서 인정되지 않은 비공식 스포츠였다. 가라테만 10년을 하였다. 다음엔 태권도를 익혀 많은 제자를 키웠다. 이에 12년을 바쳤다. 마지막 다음 14년은 아이키도 사범으로 활동했다. 그는 선수로서도 나설 만큼 성장했다. 태권도 검은 띠 3단, 아이키도 역기 3단이다.

"낮에는 시계수리공으로, 저녁에 무술 사범으로 활동했죠."라고 이명복 씨가 이야기했다.

그의 간단한 말에 한 편생이 담겨있다. 수백 명의 선수, 수십 명의 사할린 주 대표팀 선수를 양성한 그는 시내에 나가면 인사받기가 바쁘다. 지인, 제자, 제자의 친척 등...

"저의 제자들은 지금 미국, 호주, 여기 러시아 극동에 얼마나 많은지요. 가끔 연락이 옵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안부소식을 전합니다. 이뻐 마음이 뿌듯합니다."라고 말한다.

착한 분으로 잘 알려진 이명복 씨의 좌우명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10월에 그는 결혼 45주년을 맞는다.

그의 아내는 한인사회계에서 잘 알려져 있다. 바로 코르사코브 한인회 부회장인 박창순 씨다. 그녀는 한국어교육, 이산가족문제, 문화담당을 하고 있다. 그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국어 가르치기도 하고, 한인회 소속 예술단체들을 이끌어, 무용과 노래를 가르치기도 한다. 또한 노인회장까지 한다.

이명복 씨는 한인사회에서 아내를 많이 도와주기도 한다. 사실 한인 행사에 부부가 꼭 같이 등장하니 보기가 좋다.

그는 아내와 취미도 같이 나눈다.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 그는 44년 전에 딸 낳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아내를 첫 겨울 낚시에 데려갔다. 이 취미를 부부는 계속 즐기고 있다고 한다. 함께 야외를 즐기는 것, 주말 산, 호숫가, 바닷가에 나가 텐트에서 야영하는 것도 좋아한다.

한국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따라 이명복 씨 역시 한국 노래에 푹 빠졌다. 조선학교 4학년까지 나왔지만 우리 글을 많이 잊어서 최근에 한국어 가사를 외우기 위해 한국어공부도 열심히 한다. 가끔 한인회가 주관하는 수업에도 나오지만 주로 집에서 자습을 하고 있다. 한국 노래는 50여곡을 이미 배웠다고 한다.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한가?'란 생각이 들었다. 두 분의 서로에 대한 존경, 배려,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책임감이 얼마나 높은지도 잘 알고 있다.

사실 이명복 선생이 결혼 날짜를 얘기할 때 깜짝 놀랐다. 보통 남자들은 생일 날짜, 가족 기념일 날짜를 잘 기억하지 않는데 이명복 씨의 입에서 이 날짜가 바로 튀어났다.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니 사람들도 이들에 대해 좋은 말을 한다.

코르사코브 한인회 전 회장 이태출 씨, 현 회장 이 블라디미르 씨는 이구동성으로 '좋은 분이고, 좋은 가장, 그리고 좋은 부부'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명복 선생이 75회 생신을 맞이한다. 큰 잔치는 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 몇 명과 함께 이날을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이날을 맞이하면서 그는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고, 만족한다고 말한다.

이번에 75회 생신을 맞이하는 이명복 씨에게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의 바이애슬론 선수, 동맹컵 단계에서 은메달 획득

사할린의 아나스타시아 바트마노와 바이애슬론 선수가 소치에서 열린 동맹컵 하계 바이애슬론 파리(PARI) 단계의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4년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됐던 '라우라' 스키-바이애슬론 종합 단지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종합 코스 종목으로 스프린트, 추적, 매스-스타트(단체출발)가 진행됐다. 사할린의 아나스타시아 바트마노와 선수는 마지막 12.5km 경주에서 실점을 얻어 34분29.4초를 기록했다. 매스-스타트의 우승은 34분08.2초로 결승점을 통과한 이리나 카자케위치 선수가 차지했다.

아나스타시아 바트마노와 선수(코치 유리 바트마노브)는 사할린주 예비 스포츠센터의 육상 선수로서 러시아 바이애슬론 종목 예비선발팀에 소속돼 있다.

동맹컵 하계 바이애슬론 경기 첫 단계가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소치에서 열렸고, 2차 단계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벨라루스의 라우비치에서 진행된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ая биатлонистка взяла серебро на этапе Кубка Содруж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ая биатлонистка Анастасия Батманова стала серебряным призёром в массстарте на этапе PARI Кубка Содружества по летнему биатлону в Сочи. Соревнования, в которы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оссийские и белорус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прошл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лыжно-биатл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Лаура", принимавше-

го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 Пара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2014 года.

На трассах комплекса прошли спринты, гонки-преследования и масс-старты. В последней гонке на 12,5 километра сахалинка Анастасия Батманова допустила один промах и показала время 35:29,4 секунды.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в масс-старте стала Ирина Казакевич с результатом 34:08,2 секунды.

Анастасия Батманова (тренер — Юрий Батманов) является спортсменкой центра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входит в резервный состав сборной России по биатлону.

Первый этап Кубка Содружества проходил в Сочи с 23 по 29 августа. Второй этап состоится в Раубичах (Белоруссия) с 15 по 18 сентябр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바닷속> 견학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초등학생들 초청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청소년 관광센터가 센터 활동에 학생들의 참가 신청서를 계속 받고 있다.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본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청소년 관광센터의 열리는 날의 일환으로 '바닷속' 견학 수업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생들을 초청한다. 향토 관광 수업에서 학생들은 사할린주 해안의 수중생물 서식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 서식환경 속의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주최 측에서는 스노클링을 위한 잠수복과 마스크, 스노클을 제공한다. 수중 수업 진행 장소까지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자녀들을 수송하도록 하고 있다고 센터 측이 밝혔다.

수업은 사전 신청에 따라 9월4일(일) 프리고로드노예 부근에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키 150cm이상, 연령은 17세 이하이다.

수업은 무료로 진행하며, 전화 300—506로 평일에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Школьник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овут на экскурсию "Морское дно"

Центр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уризм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должает запись детей в свои объединения.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ограммах центра можно узнать на специальном сайте.

В рамках дня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ЦДЮТ приглашает школьник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выездное занятие "Морское дно". Это туристско-краеведческое занятие, на котором дети не только узнают о прибрежных водных обитател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 и смогут понаблюдать за ними в естественной среде обитания

. Гидрокостюмы, а также маски и трубки для снорклинга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Доставка к месту проведения занятия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родителям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уризма.

Занят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районе Пригородного 4 сентябр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Рост участников должен быть не менее 150 см, возраст — до 17 лет.

Участие в занятии бесплатное. Требуетс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в рабочее время по телефону: 300506.

사할린주, 도네츠크의 샤호초르스크에 13톤의 교과서 보급

사할린 주정부는 도네츠크의 샤호초르스크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도시의 학교들을 위한 교과서류로 총13톤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 도착했다.

이 지역 행정부가 영상을 촬영해 사할린주로부터 온 첫 화물임을 전했다. 화면을 통해서 역사, 대수학, 기하학, 영어 등 다른 과목들의 교과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8면에 계속)

주지사,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새 관토리움 개장

9월 1일, 지식의 날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동양김나지아를 찾아 학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학교에는 1학년 초등학생 90명이 처음 교육을 받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는 9월 1일부터 600 여명의 학생들이 생물, 화학, 물리, 컴퓨터 공학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가 문을 열었다.

사할린과 쿠릴 지역에서 157개 학교가 개학해 6만2천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된다. 이는 작년 신학기보다 700명이 증가한 수치다. 1학년 신입생은 7,200명이며 사할린과 쿠릴의 학생들 80%가 1교대로 공부를 하게 된다.

"모든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여러분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 기술자, 여러 직종의 전문가들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 지금 여러분은 기초를 쌓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쌓는 길에 성공을 바라며, 또한 교사 여러분들께 학생들에게 지식의 빛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모님들, 특히 1학년 신입생과 고등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 지혜와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인데, 그러고 보면 저는 4번 졸업했습니다. 한 번은 학생으로서, 세 번은 아버지로서입니다. 지식의 날을 맞아 멋진 학기가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최 유리 사할린 주두마 의원은 동양김나지아의 학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 지식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백 번이라도 질문하세요. 감성이 풍부하고, 찬란한 학창시절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이 학교에서 여러분은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한 친구들을 얻게될 겁니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축사 후 관토리움 개장식이 시작되어 주지사는 지식을 의미하는 크리스탈 상징을 학교에 전달했다. 학생 관토리움 개장을 위해 동양 김나지아의 3개 교실을 보수공사하고, 최신 언어기술 장비가 갖추어졌다.

(이예식 기자 취재)



사할린 주민들, 현 위치에서 투표 가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대 사할린주 두마의원 선거를 9월 9일, 10일, 11일에 치르는 가운데 투표는 유권자들의 모바일로도 할 수 있음을 알렸다.

유권자가 자신의 등록된 거주지의 투표소가 아니어도 사할린 전 지역에서 편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할린의 유권자들은 자신이 등록된 지역 어디에서나 투표하는데 자신이 등록된 지역 단일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다.

현 위치에서 유권자 목록에 가입하기 위해 다음을 이용해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가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 지역 선거위원회
 - 선거구 선거위원회
 - 다기능센터
- 선거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는 지역 유권자위원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 '2022년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 폐막

50개국 450명 역대 최다 교사 참가, 차세대 교육을 향한 교사들의 열정 확인

1차(8.15~21), 2차(8.24~30)로 나눠 각 2주간 시행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개최한'2022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가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30일 막을 내렸다.

이번 연수는'한글학교, 우리 민족을 잇고 세계를 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역대 최다 인원인 50개국 450명의 교사가 온라인으로 참가하여 차세대 교육을 향한 교사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는 글로벌 시대 온라인 환경에서의 교육 역량 강화와 세계시민교육, 한국 역사·문화 집중연수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김경일 아주대 교수의 '교사의 자존감 지키기'강의, 김성효 군산동초등학교 교사의 '글쓰기수업', 송내관의 재미있는 史교육현장 송용진 대표의'궁궐기행' 등은큰 호응과 감동을 이끌어 냈다.

참가 교사들은"이번 연수에서 배운 내용은 모두 한글학교의 대면·비대면 수업에 적용 가능할 만큼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한 선물이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로서 한층 성장했으며,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연수 프로그램이 학부모들도 들으면 좋은 강의여서 한글학교에서 학부모 세미나를 진행하여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등 다양한 소감을 밝혔다.

김성곤 이사장은"코로나 19 팬데믹과 여러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며 한글학교를 지켜오신 선생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한글학교의 발전과 차세대 교육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40주년 기념 기획 언급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40주년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성대하게 이 기념일을 축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문화국 이리나 게라시모와 국장이 기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최초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수상쇼, 드론쇼가 열리고, 처음으로 코무니스치체스키 거리가 기획 '기념 산책로'로 변신된다.

2022년 내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14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올해는 사할린주 형성 75주년이기도하다.

몇 가지 행사는 이 두 기념의 날을 위해 계획돼 있다. "가장 화려한 행사는 도시의 날을 앞둔 주간인 9월5일(월)부터 진행된다. 9월의 둘째 주 토요일이 도시의 날로 정해져 이번에는 9월 10일(토)을 정점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9월 5일(월)에는 코무니스치체스키 거리에 '기념의 산책로'라는 주제로 기획 거리가 조성되어 이날부터 시민들이 생생하게 전시된 박물관으로서 코무니스치체스키 거리를 산책할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리나 게라시모와 국장이 말했다.

보행자 구역 북쪽에는 시와 주의 역사를 소개하는 대형 포스터가 설치되며, 이곳에 주 고문서보관소의 사진과 개인 소장 사진, 기타 자료에서 뽑은 사진들이 전시된다. 또한 주 중심지와 사할린 지역의 역사를 주제로 한 '패적인 설치 미술 구역'이 조성되며, 산책로의 시작점에서는 블라디미로브카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 정부청사 앞마당에서는 사할린 지역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들로 풍부하다는 것을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상기시킬 모형 설치구역이 조성되어 조도와의 탑(최초 유전 시설), 유명 휴양소 모형(삼형제 바위섬, 콜로코브스키 폭포 등)이 이곳에 설치된다. 그리고 이와 나란히 도시의 문장인 곰 문양에 색칠을 할 수 있는 휴게실이 마련되는데 예전에 도시의 날에 진행한 바 있다.

콤포르스펙트 거리에서는 '벨로(존재했다) - 스탈로(조성되었다)'를 원리로 사각 입체 사진 전시회가 조성되고, 산책로는 슬라와(영예) 광장에 있는 '찌레모크' 휴식문화센터 구역에서 종료되는데 여기에서 청년 화가들의 눈으로 보는 미래의 도시를 제시한다. 콤포르스펙트 거리에서는 매일 저녁 공연이 열릴 예정이며, 9월 5일에는 레닌 광장에서 1940년-1950년대의 음악 문화를 주제로 한 공연이 펼쳐진다.

9월 6일(화)에는 '옥차브리'영화관 앞마당에서 1960년대-1970년대의 생음악 연주가 울려 퍼지고, 9월7일(수)에는 체호브 센터 앞마당에서 1980년대 디스코 음악을 선사하며, 9월8일(목)에는 향토박물관 구역에서 예술학교 학생들의 공연과 아동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날에 유즈노사할린스크 명예시민상을 시상하고, 명예시민 명패에 오를 이름이 발표되며, 시장상을 수여한다.

9월 9일(금) 저녁 8시에는 공원에서 축제 프로그램이 계획된 가운데 공연을 비롯해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전에 없던 수상쇼, 소규모 불꽃놀이쇼가 펼쳐진다.

올해 9월 10일(토)11시에 고리끼 거리에서 모든 시민과 근로자들의 행진이 진행된다. 이번에 주요 축제행사는 승리 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진에는 주내 전 지방의 대표들이 참가하며 행진은 1시간 반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12시30분 -13시까지 승리광장의 대형 무대에서 대규모 공연 프로그램이 열리고,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공연을 펼친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나의 역사'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스포츠, 교육, 창작 행사장이 열린다.

점심 후 시공원에서는 몇몇 행사장이 열리며, '코스모스'경기장에서는 주 형성 기념을 주제로 하는 큰 축하행사가 진행되고, 대규모 김치축제가 공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18시에는 웨르흐네예 호숫가에서 수상쇼가 열리고, 이후 승리광장에서 축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가운데 20시부터 22시30분까지 초청 3개 예술팀이 공연을 펼친다. 기념일 관객들을 위해 트로핌 가수의 노래, 콩코드 오케스트라의 연주, 갈리브리와 마빅의 뮤지컬 듀엣 공연이 이뤄지고, 공연과 동시에 드론쇼가 펼쳐져 하늘로 100대의 드론이 떠오른다. 드론쇼는 행사 조직 측이 새롭게 준비한 행사다.

제20차 세계한상대회 등록, 9월 20일까지 연장

11월 1일부터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등록 마감 9월 20일로 연장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 등록 기간이 9월 20일까지 연장됐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코로나 19로 인한 출입국 제한으로 참석 결정이 어려웠던 참가자들을 위해 등록 기간을 2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40여 개국, 3천여 명의 국내외 동포 경제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리딩CEO포럼, 영비즈니스리더포럼, 한상포럼, 한상 비즈니스 세미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기업전시회 등이 있다. 또한 국내 유망 창업 기업 소개를 위한'스타트업 피칭대회', 국내 청년의 해외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면접, '한상 20주년 기념행사'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참가 신청은'한상넷(www.hansang.net)'에서 가능하다.

▶ 제20차 세계한상대회 등록 문의

문 의 처 : 한상대회 본부사무국 +82-2-3415-0051

www.hansang.net

등록 기간 : 9월 20일까지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9-11 СЕНТЯБРЯ 2022 Г. - ВЫБОРЫ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ОСЬМОГО СОЗЫВА



ПАРТИЯ
ПЕНСИОНЕРОВ

№1
В БЮЛЛЕТЕНЕ

МЫ ПРЕДЛАГАЕМ:

- Установить сахалинский МРОТ – не менее 50 000 руб.;
- Снизить цены, развивая мест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 Привлекать кадры в медицину и образование;
- Строить доступное жильё;
- Ввести «плоские» тарифы на перелёты по ДФО.

Юрий ВЫГОЛОВ, Алла ЛЮБИМОВА,
Сергей ЛИ,
Армен Хачатрян, Лидия ЛАЗАРЕВА

**ЗА ДОСТОЙНУЮ ЖИЗНЬ, КОТОРУЮ
МЫ ПОМНИМ С СОВЕТСКИХ ВРЕМЁН!**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ЗО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 отпраздновал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21 авгус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на территории



эко-фермы провела празднование 77-о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аздник посетили не только южносахалинцы, приехали гости и со всех близлежащих городов - Анивы, Холмска, Корсакова, Долинска, а также из Углегорска.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общают, что праздник посетило более полутора тысяч человек. Хорошая погода, живописные места, празднич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созданию отличного настроения.

Празднования прошли и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 Углегорске праздновани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провели дв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 отделение РО-ОСК и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Углегорска. Они состоялись 16 и 19 августа.

Красного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РООСК собралось за праздничным столом 20 августа. Как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было весело, интересно и вкусно.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 пожилые люди

21 августа в Томари жители города отпраздновали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 праздником гостей и жителей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оздравили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Наталья Захарчук, мэр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Ольга Манжара 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В этот день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медицинская программ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ровели осмотр терапевт, кардиолог и невролог, прошли занятия по ЛФК и по развитию мелкой моторики. Позднее каждому прошедшему осмотр будут высланы лекарства, а также был подарен мешок корейского риса,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РООСК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Программа проходит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Фонд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М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а предстоящих выходных медицинск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Поронайске и Макарове.



Впервы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РАМЁН»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3 сентября 2022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ТРК «АЛЛЕЯ» проводит первы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РАМЕН».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станут участниками ярк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и познакомятся с ассортиментом рамена, производимог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программе: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мастер-класс и дегустация разных видов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и, конечно, конкурс на скоростное поедание острого рамена! Также на площадке пройдут показательные бои Центра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ярмарка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зона! Начало в 14:00

Летний десант объединения «ХАНГЫЛЬ»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десант «Халлю -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ХАНГЫЛЬ» закончил свой летний сезон.

На протяжении летних каникул, программа для детей младшего и среднего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была показана в 6 город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а программа в г. Корсакове, затем г. Ани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олинск, Поронайск и Макаров.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около 600 ребят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культурой Кореи за все время программы. Каллиграфия, минхва, национальные игры и народный танец, мастер-классы вызвали огромный интерес среди учащихся. Приятной неожиданностью для команды культурного десанта стало знакомство с ребятами, которы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иятно, что во многих семьях по-прежнему живут традиции, ведь именно семья — это главный хранитель традиций, обрядов, языка.

Программа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десанта «Халлю» проводилась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Директор Ли Бюниль. В объединении «Хангыль» деятельность осуществляют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Анжела Анатольевна Пе, Алла Валерьевна О, Евгения Михайловна Ли.

(Материал предоставлен творческим объединением «Хангыль»)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выразил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в связи со смертью Михаила Горбачёва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ыразил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в связи со смертью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Михаила Горбачёва.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в послании Юн Сок Ёля говорится, что покойный Михаил Горбачёв был лидером, положившим конец эпохе антагонизма и конфликтов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принёсшим мир народам. Именно он заложил прочную основу для отношений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К и Россией, приложив усилия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К и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в 1990 году. «Экс-президент Горбачёв был лидером реформ и бесстрашным борцом. Он был политиком, который ставил интересы народа и страны выше собственных интересов, решившим смело проводить политику гласности и перестройки в духе открытости и реформ», – говорится в послании, направленном на имя дочери покойного Ирины Вирганской. Экс-президент СССР Михаил Горбачёв умер 30 августа в Москве на 92-м году жизни после тяжёлой 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й болезни. Он будет похоронен 3 сентября рядом с супругой Раисой на Новодевичьем кладбище.

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партию Тобуро возглавил Ли Чжэ Мён

На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м съезде осно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состоявшемся 28 августа на Олимпийском стадионе в Сеуле, её но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избран Ли Чжэ Мён, бывший кандидат в президенты страны. За него проголосовали 77,77% делегатов съезда. За второго кандидата Пак Ён Чжина отдано 22,23% голосов. Поблагодарив членов партии за оказанное доверие, Ли Чжэ Мён назвал своей главной целью объединение партии. Он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к актив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правящими силами в слож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Ли Чжэ Мён пообещал также привести партию к победе н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которые назначены на апрель 2024 года. Из пяти человек, выбранных в состав Высшего совета партии, четверо входят в окружение Ли Чжэ Мёна.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поздравил его с победой,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на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для решения неотложных проблем в трудные времена».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помогает развитию корееведения за рубежом

За 30 лет работы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менов (KF) направил 156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сто вузов 18 стран мир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30 авгус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онда. Преподаватели читают лекции по таким предметам ка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ультура, история,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и другие области, связанные с Кореей. Фонд оказывает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финансовую и другую помощь, выплачивая им зарплату или оказывая иную поддержку в проведени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фонда отметил, что на фоне популяр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волны Халлю в мире растёт спрос на корееведение. Поэтому фонд намерен продолжать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истема электронных разрешений на въезд распространится на остров Чечжудо

С 1 сентября иностранцы, желающие посетить остров Чечжудо, должны буду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в системе выдачи электрон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ъезд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Система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граждан 112 стран, которые могут приезжать в РК без визы. До прибытия в страну они должны ввести свои данные на сайте K-ETA,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электронное разрешение на поездку. Система была внедрена 1 сен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о из неё был исключён остров Чечжудо, имеющий статус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города». Этим стали злоупотреблять иностранцы, изначально направляющиеся в РК с целью нелегально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По данным минюста, в период со 2 по 22 августа на остров Чечжудо прибыли 1.504 гражданина Таиланда. Во въезде в страну было отказано 855 тайцам. Из них 749 ранее сталкивались с отказом в выдаче K-ETA. 15,6% из 649 человек, которым разрешили въезд в страну, исчезли, 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вязи с ними нет.

РК повышает уровень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РФ и СНГ

26 августа завершились пятидневные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в России и странах СНГ. В программ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54 преподавателя из пяти стран. Они прослуша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лекции и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контентом, связанным с культурой, историей, аспектами современ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программа проводилась в онлайн режиме, учитывая пандем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достигло рекордной отметки, что демонстрирует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проекте.

(RKI)

Сохраняя контакты своего времени

Именно так живет фотограф Виктор Ан. Именно этому посвящается его выставка в Сеуле.

С 7 сентября по 7 ноября 2022 год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музее этнографии,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в сердце Сеул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олевского дворца Кёнбоккун, пройдет 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30-лети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ореей и Узбекистаном, и Казахстаном.

Твор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MEDIA SARAM приняло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подготовке данной выставки, представив на ней работы фотографа Виктора Ана. Идея альбома зародилась у него давно. MEDIA SARAM помогло воплотить мечту в жизнь. Уже сейчас альбом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г. Алматы).

А еще в этом году Виктору Ану исполняется 75 лет, поэтому для автора издание альбома и проведение выставки является знакомым моментом. Виктор совершенно творческая личность, поэтому не любит рамки и ограничения. И все его творчество тоже такое – безграничное. Каждая фотография наполнена теплом.

Отдельной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служивает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музея Ким Хён Джун, сыгравший важную роль в данной выставке. Ведь именно он, увидев фотографии Виктора Ана, сразу понял, насколько ценен этот материал. Ким Хён Джун второй год занимается сбором материала о коре-сарам, живущих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а в фотографиях фотохудожника наглядно показана история жизн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Блиц-интервью с Виктором:

– Что для вас альбом «Контакты времени»?

– Не так уж много у нас фотоальбомов, рассказывающих о жизни корейцев СНГ. И этот альбом лишь небольшая иллюстрация всей богатой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бывшего СССР. А для меня эта книга начало надежды в продолжение фото-рассказов уже в следующих томах.

– Какую фотографию можно считать удачной?

– Сопутствие удачи: вовремя оказаться в нужном месте и в нужное время.

– Почему альбом назвали «Контакты времени»?

– Другого названия даже быть не может. Миссия фотографии – это сохранение связи между прошлым, настоящим и будущим. А для меня это послание моим детям, внукам и всему молодому поколению о нашей истории.

– Что хотите пожелать MEDIA SA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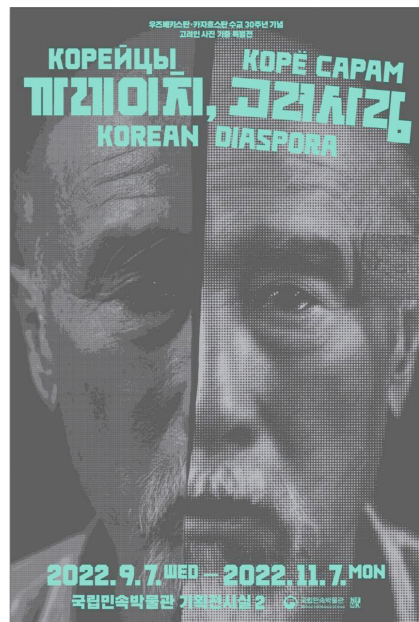
– Покорять следующие высоты! «Для нашего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



единения MEDIA SARAM этот проект особый. Он перекликается с нашими мыслями и желаниями. Мы знаем, насколько важны контакты времени. Фотография помогает сохранить все моменты нашей с вами жизни, она становится тем самым доказательством, что общечеловеческие ценности всегда остаются неизмен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прошлого рассказывают нам о том, как жили наши предки. В каждом снимке отражена эпоха времени и по выражению лиц героев можно понять их настроение и состояние души. История жизни коре-сарам должна стать частью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тому что мы – часть этой земли», – написала Евгения Цхай от лица MEDIA SARAM в предисловии к альбому.

Отзывы о Викторе Ане:

«Фотограф Виктор Ан всю свою жизнь фиксирует аспекты жизн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ныне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ескольких стран. Его фотографии вошли в научные монографии почти всех современны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корееведов. Трудно переоценить значение творчества Виктора, его архив уникален и бесценен. Сложно понять, чем он руководствовался при выборе темы для творчества в далекие 80-е годы, когда у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уществовали всего 2 обществен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их творческих амбиций –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и газета «Коре Ильбо» в Алма-Ате. С ними Виктор связывает многолет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о ареал его творческих изысканий гораздо обширнее границ Казах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Верность выбранной теме, огромный талант, фантастическое трудолюбие и редкая способность доверительного контакта с объектом съемки – все это делает его единственным летописце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ак оказалось, его фотография – это фиксация уходящей натуры, эпохи. Современные коре-сарам давно покинули места своего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и сменили род деятельности, что не могло не повлиять на образ их жизни, образ мысли и даже внешний облик. Все эти изменения фиксирует далеко не бесстрастная фотокамера Мастера. И наш долг такж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зафиксировать определённые этапы его творчества посредством издания данной фотокниги. Ведь с момента выхода предыдущей кни-



ги Виктора Ана прошло уже более 20 лет», – Андрей Магай, фотограф, видеограф, журналист.

«Близко с Виктором Аном я познакомился в квартире кукольника Сергея Сона. Тогда, впервые увидел кучу разложенных на полу фотографий, которые он перебирал, работая над очередным фотоальбомом. Я был еще студентом, но ценность таких разговоров понимал ясно. Поэтому взяв у друга камеру, все это записал. Сохранилась ли та кассета VHS?... Истории Виктора, его фотографиче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меня удивляли, я с завистью слушал все это и мечтал, когда же и я сделаю такое же – поеду и сниму. Только уже видео. Ценность снимков Виктора в том, что они помогают – как помогли мне – увидеть 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из какого ты рода племени. Кто такие коре-сарам и ты, причисляющий себя к ним? Ты, может, и не знаешь даже такого слова, но после увиденного (фотографий Виктора Ана) – это отложится, задвинется где-то внутри тебя и когда-нибудь обязательно наружится. Откроется тобою заново, по-новому. Викторские фотографии в целом, – это такой зашифрованный визуал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Но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быть готов считать его QR-код. Тогда, после... обернувшись он сможет увидеть за собой не только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дедушек и бабушек, а нечто большее – всю Историю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 Владимир Хан, режиссер.

Олег Хе, MEDIA SARAM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9-11 СЕНТЯБРЯ 2022 Г. - ВЫБОРЫ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ОСЬМОГО СОЗЫВ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2022 г. — **96 руб. 9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Р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ремонтируют мост через реку Кострома

Работы развернулись на 78 километре трассы Невельск – Томари – 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Уже в сентябре будет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а правая половина моста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55 метров. По ней будет открыто автомобильное движение, а подрядчик приступит к работам на левой половине. Такое проектн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для удобства автомобилистов.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на мосту в селе Костромском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планируется до конца года.

Подрядчик уже выполнил ремонт половины балок пролетных строений, бетонирование опор, монтаж балок пролетных строений. Сегодня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монт опор и устройство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й дорожной одежды. В финале нанесут дорожную разметку, установят знаки и пешеходное ограждение.

Как отмет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дуард Ри, мосты изнашиваются в условиях островного климата и в связи со значительным ростом интенсивности грузоперевозок. Благодаря нацпроекту до конца 2024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10 мостов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391 метр.

Сегодня, к примеру, идет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моста через реку Быструю на въезде в село Огоньки. Ежедневно по этой дороге, связывающей Анивский и Невельский районы, проезжают десятки грузовых и сотни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Проходит реконструкция мостового перехода через реку Целебную автодороги Невельск – Томари – 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благодаря федеральному и областному финансированию позволяют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создать надежную транспорт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тысячи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 и искусственных сооружений на них.

Работа по приведению в порядок островных дорог находи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Так,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на островах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ли и построили 40 участков региональных дорог и 34 – муниципальных.

В областном онк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завершился ремонт маммоло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В областном онкодиспансере провели реорганизацию, которая поможет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пациентам с раком молочной железы на новом уровне. В учреждении после ремонта открылось маммолог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омог улучшить условия пребывания для пациентов.

Органосохраняющие операции, маммопластика, реконструктивны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 в маммологическом отделении делают все, чтобы не только сохранить жизнь, но и улучшить ее качеств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учете с онкозаболеваниями состоят около 15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иболее частая локализация рака у женщин – в молочной железе.

– Учитываем разницу в состоянии у женщин после операций и химиотерапии. Маммолог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после перемещения на новые площади нуждалось в обновлении, провел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с учетом нахождения женщин в послеоперационном период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всем требованиям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 с отдельным постом, манипуляционными помещениями, светлыми палатами,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врач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Сергей Старцев.

Отделение рассчитано на 25 коек. В нем полностью поменяли все инженерные системы – водо-,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обновили отделку. В среднем лечение в нем проходят около 100 человек в месяц. Сейчас аналогичные изменения ожидают торак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 Вопросы доступности и качества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аходятся на личном контрол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Борьба с онколог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начинается с профилактики, нельзя забывать

о своевременном посещении врача.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и углубленные обследо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помогают выявить патологию на ранней стадии. В этом периоде большинство заболеваний излечимы,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Профилактика и лечение онкозаболеваний являются наиболее капиталоемкими статьями расходов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 эти цели в этом году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ено более 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Большая часть предназначен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дорогостоящих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расходных опер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Также поддерж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для онкодиспансера поступят современные маммограф, аппарат УЗИ экспертного класса, гамма-камера.

Губернатор дал старт строительству крупного ле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Новое ле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е предприятие, основные мощности которого разместятся в селе Дачное, предоставит около 240 рабочих мест и будет перечислять в бюджеты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ей более 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ежегодно. Его появление – результат соглашения, подписанного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гиона и инвестором на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год назад. В церемонии закладки памятного камня на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приятие объединит лесозаготовку, современную глубокую лесопереработку, а также работы по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Здесь будут выпускать доску различ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CLT-панели и OSB-плиты, древесные топливные гранулы и древесный уголь.

– Сегодня исторический момент. Здесь будет создана площадка, на которой будет перерабатываться около 700 тысяч кубометров леса.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продукция предприятия пойдет в 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Это будет пиловочный материал, который можно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каркаса зданий, дверных блоков, а в будущем это будут современные панели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го жилья. Договоры с компаниями, которые будут строить такое жилье, уже подписаны. Лесопереработка была на Сахалине десятки лет назад, сейчас мы фактически восстанавливаем её. Это позволит, в том числе, выполнить намеч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 жилищному строительству,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ить жителей райо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ми рабочими местам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йчас проект, соглашение о реализации которого подписали ровно год назад, включен Минпромторгом России в перечень приоритетных в области освоения лесов.

– В этом году у нас первый этап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ы поставим цеха для распиловки леса и будем производить доску для пола и вагонку. Далее выйдем на производство плит и далее по нарастающей. Лес будет местный, из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Там у нас будет свой склад и промбаза. А производство реше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на юге, чтобы быть поближе к порту, поскольку планируем поставлять продукцию не только на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но и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 рассказал один из учредителей ООО «Евразлес» Сабит Каримов.

Только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предприятие вложит в производство 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сего же до 2026 года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оценивается в 13,9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После выхода на проектную мощность ежегодно компания планирует выпускать более 330 тысяч тонн готовой продукции.

– Администрац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роводит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повышению деловой актив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айона и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оров. По итогам 2021 года наш район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области в рейтинг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и сегодня наш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дтверждение тому, что мы стали лидерами не случайно. Выражаем надежду, что с компанией «Евразлес» у нас будут надежные партнер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е только в бизнесе,

но и в реализаци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 обратился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мэр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лександр Ивашов.

17 новых «Точек роста» откроются 1 сентября в сельских шко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временных центрах образования естественно-научной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ей будут обучаться более 5,5 тысяч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Точки роста» позволят школьникам знакомиться с современными профессиями, повышать цифровую грамотность и углубленно изучать точные науки.

–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ы создаем услов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ши школьники могли получать качественные знания. Причем независимо от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Открытие новых «Точек роста» во многом помогает решить эту задачу. В этом году новые центры образования откроются в 13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борудованных по последнему слову техники кабинетах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занятия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основам моделирования и материаловедения,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ю, математике, технологии и основ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Учителя школ, на базе которых откроются «Точки роста», прошли переподготовку и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Для ученических классов закупили современные ноутбуки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Также были приобретены настольные компьютеры, цифровые микроскопы, наборы для выполнения ОГЭ по химии, цифровые лаборатории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по биологии, химии, физике, учебные роботы-манипуляторы.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иобретут оборудовани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офиля на сумму более 6,5 млн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на уроках физики, химии, биологии и технологии школьникам будет доступно российское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овременная школ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в регионе с 2019 года открыто 65 центров «Точка роста» и школьный «Кванториум»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На их оснащение направлено свыше 143 млн рублей.

– Я рада, что школа № 2 Долинска, где я неоднократно была, общалась с педагогами и ребятами, получит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современное отечеств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Чем больше «Точек роста» мы откроем на кар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ем больше ярких «звездочек» появится среди наших ребят, – отметила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Наталья Коршуно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Юридический Форум-2022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6-7 сентября.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лидеры юрид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обсудят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при ведении бизнеса в нов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Юридический Форум проходит в регионе во второй раз. В этом году в формате дискуссий и экспертных сессий будут затронуты темы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и санкций, банкротства, налоговых проверок. Отдельный блок информации на форуме посвящен комплексному развитию территорий – эксперты расскажут о рисках землепользователей и механизмах поддержки застройщиков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цедуры КРТ, – поделился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В составе партнеров и спикеров форума известные правоведа,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уд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нотариата и адвокатуры. Личное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откры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дать волнующие вопросы экспертам и узнать из первых уст перспективу развития и внедрения той или иной инициативы.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одробной программой форума и пройти регистрацию можно на сайте: <https://www.vostok-legal.ru>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9-11 СЕНТЯБРЯ 2022 Г. - ВЫБОРЫ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ОСЬМОГО СОЗЫВА



오송첨단의료재단 따뜻한 추석맞이 청주 취약계층 선물 전달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KBIOHealth)은 1일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에 추석맞이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선물은 사회적기업에서 구입한 보리국수 세트며, 오송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을 비롯한 취약계층 50가구에 비대면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KBIOHealth 박흥교 본부장과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유응모 관장, 사할린 영주귀국 한인회 김정욱 회장이 참석했다.

박흥교 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에 작은 정성이지만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KBIOHealth는 지역 발전과 나눔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BIOHealth는 다가오는 7일 오송읍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오송 지역 내 주변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단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추석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일보]

충북대 '사할린즈',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들과 한국 전통도장 만들기 체험 진행

충북대는 동아리 '사할린즈'(팀장 신민호 러시아 언어문화학과 2학년 외 16명)가 30일 오송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들과 함께 '한국 전통 도장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동아리 사할린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나만의 책도장 만들기' 체험 행사에서 주민들과 함께 한국 전통도장의 의미와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직접 도장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전각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생소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에게 한국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한 계기가 됐다.

신민호 학생(러시아언어문화학과 2학년)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 어르신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며 "제작된 도장은 향후 사할린 한인사 관련 도서의 장서인(藏書印)과 어르신들의 인감도장(印鑑圖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동아리 '사할린즈'는 지난 4월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한 「2022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 '동아리아, 멘토링 하자!'」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 현재 연계기관인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자체 출판물을 제작해 사할린 한인사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대 제공
[출처: 베리타스알파]

2022 드림서포터즈(꿈지원사업) 모집공고

• (소개) 글로벌한상드림은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해온 한상(韓商)이 글로벌 차세대 한민족 인재양성과 교류를 위해 만든 공익법인입니다. 세계 속에서 한민족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 (목적) 글로벌한상드림은 '드림서포터즈' 차세대 한민족 꿈 지원 사업을 통해 선발된 차세대 한민족에게 양질의 프로그램과 지원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1)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구체적 실천력과 의지를 가진 차세대 한민족
- 2) 성장을 위해 스스로 변화하고, 동기들과 함께하고, 누군가의 조언과 도움을 수용하고 필요로 하는 차세대 한민족
- 3) 내국인, 국외 거주 동포, 국내 체류 동포, 취약계층 등 KOREAN 누구나
- 4)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차세대 한민족 (198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1년 5백만원(정액, 생활비성)
- 2) 지원기간 :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매년 계속 지원 여부 재심)
- 3) 선발인원 : 00명 ※한상드림장학금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 절차) 문의 사항 : 02-3415-0177

- 1) 이메일 접수 : dream@hansangdream.org
- 2) 서류제출 준수사항
- 이메일 제목 : 드림서포터즈 지원-홍길동, 지원서 파일명 : 드림서포터즈 지원-홍길동
- 지원서 파일은 글로벌한상드림 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물 내려받기
- 지원서 파일은 PDF로 변환하지 말고, 한글

파일 혹은 MS-WORD 파일로 제출할 것

• (선발절차 및 일정) *전체 일정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변동 가능

1) 서류접수 : 2022. 08. 22. (월) ~ 09. 14. (수) (서류접수 기간 이후 접수 불가)

2) 면접심사 : 2022. 10. 07. (금) (서류 합격 안내 : 2022. 09. 28 예정)

※면접 시 증빙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3) 합격발표 : 2022. 10. 13. (목) 글로벌한상드림 홈페이지 공지

4) 사전교육 : 2022. 10. 29. (토) 예정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사전교육 필수 참가 : 불참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탈락

5) 지원금수여식 및 워크숍 : 2022. 11. 1. (화) ~ 2022. 11. 3(목) 중

※장소 : 2022년 세계한상대회 개최지 울산광역시

• (합격자 혜택)

1) 꿈 지원금 : 1년 5백만원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2) 멘토링 : 한상CEO와 만남, 꿈을 위한 계획의 실현성과 구체성 점검 및 협의

3) 선배 네트워킹 : 졸업한 다양한 분야의 선배들과 자율적 만남

4) 세계한상대회 참가 기회 제공

• (합격자 활동 사항)

1) 드림멘토링 연 3회 : 자신의 꿈을 위한 계획의 실현성, 구체성을 점검 및 협의

2) 전체 워크숍 연 1회 : 세계한상대회 참석 (2022년 11월 중)

3) 독서 토론 : 월 1회 선정도서 2권으로 드림서포터즈 독서 토론

4) 기타 과제 제출 : 활동계획서와 활동 보고서 제출 등 사무국에서 요청하는 과제

2022 드림서포터즈

차세대 한민족 "꿈" 지원 사업
2022.08.22.(월) ~ 09.14.(수)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꿈 지원금 500만원 지원!!
멘토링, 선배 네트워킹, 세계한상대회 참가기회 제공!!

지원자격

- ▶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차세대 한민족
- ▶ 성장을 위해 스스로 변화하고, 동기들과 함께하고, 누군가의 조언과 도움을 수용하고 필요로 하는 차세대 한민족
- ▶ 내국인, 국외 거주 동포, 국내 체류 동포, 취약계층 등 KOREAN 누구나
-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차세대 한민족(1988년 1월1일 이후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출생자)

합격자 활동 사항

- ▶ 드림멘토링 연 3회 : 꿈을 위한 계획의 실현성, 구체성을 점검
- ▶ 전체 워크숍 연 1회 : 세계한상대회 참석
- ▶ 독서 토론 : 월 1회 선정도서 2권으로 드림서포터즈 독서 토론
- ▶ 기타 과제 제출 : 활동계획서와 활동 보고서 제출 등 사무국에서 요청하는 과제

이메일 접수 : dream@hansangdream.org

지원서 파일 : 글로벌한상드림 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hansangdream.org/)에서 확인해 주세요!

글로벌한상드림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주는 1,800만 루블리를 들여 교과서를 지원했다. 사할린 주정부는 샤호초르스크 어린이들을 2차로 휴양 소로 보냈다. 사할린 측은 첫 번째 학생그룹을 크림 반도로 보냈고, 이번에는 아나파로 보냈다. 샤호초르스크 행정부는 휴양하는 학생들의 수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들 모두가 스포나 문화 분야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샤호초르스크와 사할린주 간 협력은 몇 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Сахалин привез 13 тонн учебников в донецкий Шахтерс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 помогать донецкому Шахтерску. Приехала в ДНР гуманитарная помощь в виде учебников для школ города — всего 13 тонн груза. Местн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записала видео, где сообщила, что это только первый транш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кадрах можно заметить учебники истории, алгебры, геометри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и других предметов. Область потратила на них 1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Организовал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торую поездку для детей из Шахтерска на отдых. Первый раз

островитяне отправили группу ребят в Крым, теперь — в Анапу. 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отдыхающих местн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не называет, но отмечает, что все они имеют успехи в спорте или культуре. По плана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Шахтерском и Сахалином продлится несколько лет.

6개월간 사할린주 거주자 3,500명 감소

1월부터 6월까지 사할린주에서 자연적 인구감소가 나타났다. 주민신분등록소에는 출생아 2,470명, 사망자 3,572명으로 등록됐으며, 자연적 인구감소는 1,102명으로 집계됐고 이에 비해 2021년 유사시기 자연적 인구감소는 732명이었다.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더 많은 4개 지역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세웨로 쿠릴스크이다. 주내 혼인은 1,439 건, 이혼은 1,213 건이며, 2021년 유사시기에는 혼인 1,479건, 이혼 1,182건이었다. 사할린주의 내무부 이주민 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1월 - 6월 기간에 사할린과 쿠릴에 입도한 사람은 8,228명이며 이중 49.4%가 상시 거주민이다. 반면 사할린을 떠난 사람들은 1만1,729명으로 이 중 85.7%가 이전 거주지 등록을 취소했다. 사할린 주내에서 2,643명이 거주지 등록을 했으며, 사할린주에서 주민 감소는 3,501명으로 집계됐다. 사할린주의 사회, 인구통계학, 환경보호, 기타 공공 진행과정

За полгода миграционная убыл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ила 3,5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За январь-июн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2470 родившихся и 3572 умерших.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1102 человека,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21 года убыль составляла 732 человека.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четыр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уриль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439 браков и 1213 разводов против 1479 браков и 1182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21 года.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июнь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и 8228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49,4%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о 11 729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85,7%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2643 человека. Миграцио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3501 человек. Узнать о социальных, демографически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и друг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цесса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Сахалинстат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SAKH.COM • БИЛЕ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ru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x.com

Google play

App Store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